◈ 會員社 動靜 ◈

現代重工業(株), 發電 設備 工場 竣工

現代重工業(株)가 초대형 터빈·발전기공장을 준공하고 발전설비사업을 턴키베이스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와 함께 「기계공업의 꽃」이다 할 수 있는 터빈생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러 이 분야 국내 기술력향상과 함께 내외경쟁력강화가 기대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일 울산공장에서 李壽成 국무총리, 李宗勳 한전사장, 鄭夢九 현대그룹회장, 金正國 현대중공업사장, 劉在皖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터빈·발전기공장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준공된 터빈 발전기 공장은 연간 3천MW에 이르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용 스팀터빈과 복합화력용가스터빈, 그리고 연간 4천MW에 달하는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이같은 생산능력은 연간 5백~1천3백MW급 화력발전소 5기와 1백MW급가스터빈발전소 5기를 턴키베이스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대지 4만3천평, 건평 2만평의 부지에 3천5백억원을 투입, 지난 94년 8월에 착공, 27개월만에 이날 완공된 터빈·발전기공장은 생산설비면에서 ABB, 미쓰비시등 세계굴지의 유수업체와 겨뤄도 대등한 최첨단·초대형설비로 구축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 발전설비시장은 한국중공업독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번 터빈·발전기공장 준공은 국내 대형 발전설비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매출액의 3%에 머물고 있는 발전설비분야를 오는 2천년까지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이분야 기술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공장구성을 보면 대형제관공장, 대형가공공장, 터빈조립공장, 발전기제작공장, 전동기 제작공장 등이다. 생산품목은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용스팀터빈/발전기(50~1천3백MW), 대형가스터빈발전/발전기(50~2백50MW), 선박주추진스팀터빈(15~40MW), 디젤엔진발전기(50MW까지), 대형전동기(5만마력까지)이다.

생산능력은 연간 대형/중형스팀터빈 및 가스터빈 3천MW, 대형/중소형발전기 4천MW, 대형전동기 1만대이다.

특히 이공장의 주요 설비로는 국내최대의 시험설비인 고속진공평형시험설비를 비롯 초대형가공장비인 플라노밀러, 대형수평보링 및 밀링기, 대형수평보링 및 밀링기, 수직터닝 및 보링장비, 사이드엔트리머신, 4축제어다기능 머시닝센터, 로터그라인딩기, 블레이드황삭 및 정삭기, 코일테이핑기, 코일진공가압함침기 등이다.

현재 동사는 지난 6월말부터 부문가동에 들어가 이미 1백85MW급과 4백90MW급 복합화력발전소용 터빈을 제작중이며 최근에는 민자로 추진되는 5백1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용 주기기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터빈 발전기공장 준공은 동사가 2천년에 세계 10대 발전설비 업체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LG産電(株), 범용 릴레이 유럽 CE 마크 획득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범용 릴레이(Relay)'의 유럽 수출을 위해 최근 세계적인 품질인증기관인 독일 튜프(TUV)로 부터 유럽 제품규격인 CE(Conformite Europeenne)마크를 획득했다.

이번 CE마크 획득으로 LG산전은 '범용 릴레이(Relay)'의 단품 수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공략을 서두르는 국내 공작기계 업체에 납품이 유리해지는 등 수출과 매출 증대에 밝은 전망을 갖게 됐다.

CE마크는 유럽 각국의 시장보호를 위해 지난 '95년에 의무화된 제품규격으로 이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을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릴레이(Relay)란 공작기계, 배전반 등 각종 기계류나 전자기기에 부착되어 제어신호를 접점을 통해 끊고 이어주는 기기로 제어의 정확도가 제품 성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시험에서 LG산전의 범용 릴레이는 외부 노이즈(Noise)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 방해파 시험, 전자 감수성 시험 등을 통과해 제품의 정확도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CE마크 획득은 국내시장에서 고신뢰성 제품으로 인정받아 국산 제품보다 20% 이상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일본 제품과 대등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게 하여 현재 수입품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범용 릴레이 시장에서 상당한 수입대체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LG電線(株), 태국 가공송전선로 건설 계약

LG電線(株)(代表:權炆久)가 태국 전력청과 2천5백만달러 규모의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LG전선과 LG엔지니어링은 컨소시움으로 지난 6월 태국 전력청이 발주한 나콘시타마라트와 통승을 잇는 총연장 1백60km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LG전선은 이와함께 추가공사구간인 총연장 45km구간의 반풍지역 건설까지 낙찰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총 수주금액은 4천만달러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LG전선은 이번 공사를 광복합 가공지선(OPGW) 공급부터 악세사리, 철탑, 건설공사까지 포함하는 일괄수주로 국내 전선업체가 해외로부터 가공송전공사를 턴키로 수주한 최초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LG전선은 이번 공사를 위해 별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한편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다음달부터 제품을 선적, 98년 6월까지 1차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9년 2월까지 모든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태국전력청의 이같은 프로젝트는 기존의 154KV 송전선을 모두 230KV 송전선으로 교체하는 가공송전선로 공사로 LG전선을 비롯 일본 후지쿠라, 태국 수미덴, 다국적기업인 아멕파워등이 응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新韓電機工業(株), 전국 품질경연대회 산업 포장 수상

新韓電機工業(株)(代表:朴吉相)가 한국표준협회주최, 통상산업부와 국립기술 품질원 후원으로 개최된 제 22회 전국품질경연대회에서 품질 경영 유공자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WTO 체제 및 OECD 가입등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우위의 중요성과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이번 수상의 의미는 남달리 크다고 하겠다.

신한전기공업은 그동안 '85년 전기의날 석탑산업훈장, '91년 무역의날 수출탑 등을 수상했으며 '95년 ISO 9001 인증을 획득 경영방침을 품질체계 확립, 국제경쟁력 강화, 업무 체질 개선으로 재정비하는 등 경영변신을 시도함으로써 업계에 경영혁신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한전기는 이번 시상을 계기로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다져온 기술력과 품질,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업체질을 한층 강화시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朝興電機産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朝興電機産業(株)(代表:崔伯奎)가 최근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QA)으로부터 용접기의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조흥전기는 1년여간 철저한 준비를 거쳐 국내용접기업체 최초로 ISO 9001을 획득했다. 이처럼 조흥전기는 생산과 서비스 전반의 국제화를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신뢰도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흥전기는 국제화의 일환으로 중국심양에 용접기 공장을 설립, 가동중에 있으며 고객만족 품질고급화 실현만이 21세기 경영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종사자들이 한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일하고 있다.

(株)眞露인더스트리즈, 印尼 전력선 1천만불 계약

(株)眞露인더스트리즈(代表:金昞洙)가 인도네시아에 전력선 1천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연합전선에서 상호를 변경한 동사는 인도네시아 APRIL 그룹측과 지난달 17일 베칸바루(BARU) 지역에 건설중인 제지공장에 들어가는 전력선 공급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진로인더스트리즈가 베칸 바루 제지공장에 공급하는 전력선은 22.9kV급 케이블을 비롯 600V급 절연전선등 총 1천만달러 규모로 오는 12월초부터 선적에 들어가 98년 11월까지 분할 공급 될 계획이다.

또한 진로인더스티리즈는 내년에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 해외 통신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충남 천안에 있는 기존의 동축케이블 공장에 연 생산능력 30만km규모의 광케이블 생산설비를 완공,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진로인더스트리즈는 眞露의 영문표기인 「JINRO」의 가운데 'N'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한 새로운 CI 기업이미지 통일을 확정했다

코오롱엔지니어링(株), 유니마이저 마케팅 본격화

코오롱엔지니어링(株)(代表:孔龍助)가 절전장치 유니마이저의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오롱엔지니어링은 내년초 본격 생산출시를 앞두고 10월말 양산체제를 구축한데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11월중에 서울 등 수도권지역 수용가를 대상으로 유니마이저 1백대를 무료 설치해줌으로써 수용가가 절전효과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수요 창출에 힘쓰고 있다.

모든 전기 설비의 인입 부분에 간단히 부착해 각종 부하설비에 복합적으로 대응토록 설계된 유니마이저는 조명학회 테스트결과 설치시 부하의 종류에 따라 10~25%의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회수 기간이 1~1.5년 내외로 경제성이 탁월한 제품이다.

상호 자기 유도방식을 채택한 이 제품은 전도성 유해 전자파의 발생이 없고 역률개선과 전기기기나 설비의 수명연장 등 장점이 많은 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95년 12월 독일 뉴른베르그 국제 발명품 경진대회(IENA)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세계환경 단체(IFIA)로 부터 환경보호 특별상을 받은바 잇고 지난 4월에는 통산부 국가전략품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유니마이저는 제품은 조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프레차이즈점에 적용할 경우 효과가 높고 냉방용 에어컨디셔너, 컨베이어 등의 가변 부하에서도 안정적인 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